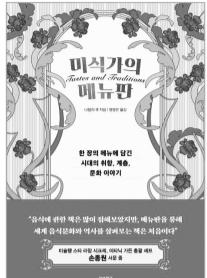


한 장의 메뉴판, 세계를 보여주다

미식가의 메뉴판

나탈리 쿠 지음, 정영은 옮김



프레더릭 앤드 넬슨 백화점의 어린이 메뉴. 1955년경.

화려한 영국 왕의 대관식 기념 오잔 메뉴판은 그 자체만으로도 식탁에 차려진 호화로운 음식을 떠올리게 한다. 요리사 복을 입은 돼지들과 유쾌한 뼈에로의 모습이 담긴 어린이용 메뉴판은 아이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터다. 메뉴판에 적힌 수수께끼를 풀어가며 음식을 맛보는 일은 조금 난해하기 해도 얼마나 흥미로운 경험일까.

책에 등장하는 온갖 메뉴판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상상의 나래를 펴게된다.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메뉴판을 통해 세계여행을 떠나고 역사 속 사실과 조우한다.

캐나다 몬트리올 맥길대 교수로 음식과 문학, 식문화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나탈리 쿠이 쓴 '미식가의 메뉴판'은 음식 너머에 담긴 사회와 문화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책이 갖는 가장 큰 미덕은 풍부한 메뉴판 사진이다. 시대와 국가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진은 독자를 당시의 식탁 앞으로 데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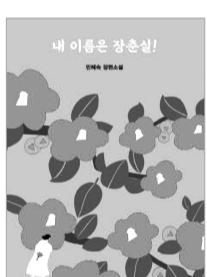
메뉴판의 기본 역할은 음식 선택을 돋는 것이지만 많은 메뉴판은 인쇄술과 예술, 그래픽 디자인의 발전사를 보여주는 자료 역할을 하고 당시의 문화를 소개하는 소중한 사료가 된다.

1장 '눈이 즐거운 만찬'에서 만나는 메뉴판들은 하나의 '작품'처럼 보인다. 과감한 인물 묘사와 섬세한 스케치 선으로 풍부한 장면을 연출한 틀루즈 로트레의 메뉴판과 칼스 디킨스의 '올리비에 트위스트' 삽화가로 유명한 월 오언이 제작한 메뉴판 등은 매우 적다. 호화 어색선에 오른 이들의 식탁 위에는 여행할 나라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메뉴판이 놓인다.

50년만에 가족 만난 탈북 여성...돈 앞에 무력한 혈육들

내 이름은 장춘실!

민혜숙 지음



앞에 넋을 놓고 앉아 있었다"며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운 피켓과 벽에 써붙인 호소문을 비춰줄 때마다 눈물을 닦으며 함께 울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실수나 잘못에 비해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비극을 정의하는 말이라면, 비극의 주인공이 된 그들이 가여웠고, 억울했다"고 덧붙였다.

가족의 상봉은 눈물바다를 이루게 했지만, 인간사는 한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민 작가는 주목한 것은 가족 간의 갈등이었다. 자칫 기대에 못 미치는 가족의 등장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작품 속 춘실은 고학을 넘긴 여성이다. 먼저 탈북한 작은딸을 따라 50여 년만에 아버지를 만났을 때 "우리 딸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안 죽고 용개 살아 있었구나" 하며 아버지는 춘실의 어릴 적 이름을 기억하며 다정스럽게 말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가족 몰래 돈을 좀 주었을 뿐, 두 사람은 밥 한 끼 함께 먹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버지의 새 가족들은 춘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민 작가는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있던 당시 대학원생이었다. 그는 "마침 방학을 맞아 며칠 동안 텔레비전

아버지의 새 가족도 돈 앞에 무력한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 애면글면 키운 딸이고 업어 키우다시피 한 동생인데, 그들은 돈이 우선이다. 춘실을 냉대하고 외면하는 아버지 가족의 태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민 작가는 탈북민이 4만 명에 이르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본다. 그들의 치열한 사연들은 우리에게 성찰과 사유를 요한다. 작가는 "전쟁으로 인한 1세대 이산가족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났다. 탈북 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이산가족에게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안타깝다"며 "같은 민족'이라는 말의 의미도 헤미해지는 이 시대에 안전지대에서 살아온 행운이 다행스러우면서도 공연히 미안하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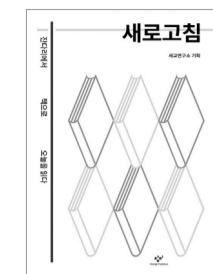
한편 민 작가는 연세대 불문과에서 박사학위를, 전남대 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남대, 호남신학대에서 강의했다. 소설집으로 '서울대 시지푸스', '황강 가는 길' 등과 장편소설로 '세브란스 병원 이야기', '돌아온 배' 등이 있다. (강·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슈퍼컨버전스, 초융합 시대가 온다(제이미 매출 지음, 최영은 옮김)=AI와 유전공학, 바이오테크가 결합하며 의료·식량·경제 전반을 바꾸는 '초융합'의 시대를 전망한다. 유전체 기반 정밀의료, 유전자 편집농업, 바이오 신소재 등 향후 5~10년 안에 현실화될 변화들을 최신 사례로 짚는다. 생명 설계 기술이 가져올 기회와 위험을 함께 제시하며 다가올 기술 전환의 방향을 읽게 한다.

〈비즈니스북스·2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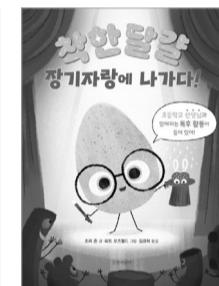
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걷는사람·1만2000원〉

▲장학의 철학(사사이 기요노리 지음, 김정화 옮김)=유니클로·무인양품·이온몰 등 일본 대표 유통 기업들이 경영의 뿌리로 삼아온 '장사 10계명'을 정리한 책이다.

일본 상업의 아버지로 불리는 구라모토 조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 직원 존중, 경영자의 책임이라는 장사의 본질을 짚는다. AI와 플랫폼 경제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넘기는 장사'의 원칙을 짧은 글과 사례로 풀어낸다.

〈한국경제신문·1만9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친구를 만드는 커다란 귀(하은미 지음, 소복이 그림)=스마트 기기에 익숙해지며 말하기는 늘었지만 듣는 법은 잊어버린 아이들에게 '경청'의 힘을 전하는 그림 책이다. 귀를 닫고 살던 아이가 신비로운 마녀를 만나며, 진짜 소통은 말을 잘하는 테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 주는 테사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관계의 첫걸음이 '잘 듣는 일'임을 일깨운다. (다봄·1만5000원)

▲아빠의 거울 방학(김유진 지음)=거울 방학을 맞아 할아버지 댁으로 향한 아이는 낡은 앨범을 펼치며 아빠의 어린 시절과 만난다. 딱지치기와 눈싸움, 만화 잡지와 전자오락 같은 아빠의 추억은 아이에게 낯설고도 새로운 거울의 풍경이 된다. 따뜻한 색감의 그림은 부모와 아이를 이어주며 서로의 시간을 이해하게 하는 세대 공감의 순간을 전한다.

〈책읽는곰·1만5000원〉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월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월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

